

‘축구의 고향’ 연변, 축구 경제로 도시 명함 다시 쓴다



연길시금대축구구락부 실내 축구장에서 청소년들이 한창 코치의 지도 아래 축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2월 26일)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에서 가장 일찍 축구운동을 시작한 지역 중 하나로 축구 전통이 100년 넘게 이어져왔다. 전국에서 첫진으로 되는 ‘축구의 고향’인 연변은 축구를 중점 사업으로 삼아 꾸준히 발전시켜왔으며 2015년에 〈중국축구 개혁발전 총체적 방안〉이 출범된 이래 사회축구를 토양으로, 교정축구를 뿌리로, 프로축구를 견인으로 축구 문화관광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연변 모델’을 점차적으로 탐구해왔다.

동북 변방에 위치해있으며 총인구가 약 200만명인 연변은 축구 열기로 가득차있는데 매년 2,000여회에 달하는 축구 경기가 열리며 1만명당 축구장 1.42개를 보유하고 있다. 전 주 중소학교중 절반 이상이 국가급 축구특색학교를 건설했으며 중소학교에서는 매주 체육수업중 최소 1교시는 축구수업으로 배정하고 있다… 축구는 연변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일상활동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사회발전에서 ‘축구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연간 2,000회가 넘는 경기

경칩이 지나고 눈과 얼음이 점차 녹으면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수부 연길시의 여러 실외 인조잔디 축구장은 다시 ‘축구 열기’로 불타오르고 있다. 전 연길시 주요 실내 축구장들은 겨우내 거의 만원 상태를 유지했다. “설날 당일만 하루 쉬었다.”고 연길시금대축구구락부의 운영진 총경리는 말했다.

부르하통하 강변에 위치한 이 구락부의 실내 축구장을 둘러보니 표준 11인제 축구장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있었고 축구애호가들이 한창 경기를 펼치거나 기술훈련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운영진 총경리의 운영 일정표는 거의 모든 평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주말 전 시간대가 예약으로 꽉 차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축구는 연변사람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체육국 국장 김국범은 이렇게 말하면서 “전 주적으로 매년 2,000회가 넘는 축구 경기가 열리며 거기에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경기를 더하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6세부터 6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는 ‘홍성류’컵 전국백팀 축구초청전 등 일련의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 연변은 기관, 대학, 농촌, 로인, 장애인 등 다양한 부문을

매년 평균 축구 경기가 2,000 회 넘게 조직되고 인구 1 만명당 1.42 개의 축구장을 보유하고 있다 . 전 주 중소학교 절반이 이미 국가급 축구특색 학교로 건설되었고 중소학교들에서는 매주 체육 수업에 축구수업이 최소 1 회 배정된다

포함한 연변주운동회 등 여러 대회들을 개최할 예정인바 축구 열기가 더욱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변은 1956년에 전국 ‘축구의 고향’ 칭호를 수여받았고 1979년에 국가 첫진의 축구 중점 도시로 지정되었으며 1994년 축구 프로화이래 연변운동, 연변부덕, 연변룡정 등 리그에서 영향력 있는 3개 팀을 배출했다. 지금까지 전국 각지의 구락부에 500명 이상의 인재를 수송했으며 각 급별 국가대표팀에 40여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수송했다.

“전 주적으로 총 276개의 축구장이 건설되었으며 1만명당 약 1.42개의 축구장을 보유하고 있어 전체중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선두를 달립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축구협회 비서장 정국철은 이렇게 말하면서 전 주 8개 현(시) 등에서 전부 공공축구장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부문과 협력해 교정의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더 많은 학교 체육장들을 사회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주 최소 1 교시의 축구수업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연길시전공소학교의 축구수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운동장에서 체육교원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축구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3학년 아이들이 게임식 몸풀기를 마친 후 패스 연습을 시작했다. 이 학교는 일찍 1963년에 첫 학교 축구팀을 구성했으며 수십년 동안 수많은 유망자들을 배출했다.

“전문 인재를 배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학생들의 흥미를 키우고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 건강을 다지는 데 더 중점을 둡니다.” 건공소학교 체육조 조장 김천룡의 말이다. 연변에는 현재 234개의 중소학교가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국가급 축구특색학교로 지정되었다. 이 학교의 아이들에게 새 학기의 시작은 새로운 축구 시즌의 도래를 의미한다.

오후 수업이 끝난 후 연길시제5중학교 운동장에서는 두개 학급의 경기가 한창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었고 경기장 주변에는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어린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체육교원 김영철은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반까지 학교에서 축구훈련을 조직한다며 이는 오랜 전통이라고 말했다. “학급마다 팀이 있고 매주마다 축구수업이 있으며 달마다 경기가 있습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국 체육보건처 처장 지국표는 축구특색학교는 매주 최소 2교시의 체육수업을 축구수업으로 배정해야 하며 일반 학교도 최소 1교시는 축구수업을 보장한다고 소개했다.

축구특색학교외에도 현지 교육 및 체육 부문을 연합하여 19개의 축구특색유치원을 설립했으며 학교, 학교간, 현(시)에서 전 주로 이어지는 청소년 4단계 리그 시스템을 구축했다.

“매년 축구운동에 참여하는 중소학생은 8만명 이상이며 정기적으로 전문 축구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은 2,500여명에 달합니다.” 김국범의 말이다. 올해는 또 제36회 전 주 청소년 축구리그가 열릴 예정이다.

교정축구의 상류 견인하에 현지 유소년훈련기구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아마추어 체육학교의 인재 구조도 점차 안정화되어가고 있다. 연변체육운동학교 훈련과 과장 백승호는 “매년 13세부터 17세까지 5개 연령대, 각 연령대별 30여명의 축구인재를 축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축구 경제, 도시의 명함을 재구성하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연길시는 약 306만명의 관광객을 접대하면서 약 43억 6,000만원의 관광수입을 올렸다. 이는 동기 대비 각각 12.2%와 5.1% 증가한 수치이다. 이 ‘왕홍도시’의 매력은 민속풍경과 특색음식 이외에도 ‘축구+문화관광’이 이끄는 도시 활력에 있었다.

축구를 관람하고 커피 한잔 즐기면서 여행사진 찍기, 그리고 맛집 리스트를 따라 미식을 맛보는 것은 많은 관광객들이 연길을 방문할 때 선택하는 사항들이다. “하루 최대 1,200잔

이상을 팔았습니다.” 연변대학 근처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리군은 어릴 때부터 연변팀 팬이었다면서 고향의 문화·체육·관광 산업이 융합된 시장전망을 보고 졸업후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룡정시해란강축구산업단지는 연변지역의 관광 인기 목적지중 하나이다. 총 7억 5,000만원을 투자해 건설된 축구문화타운은 연변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47개의 연결된 축구장(连片足球场)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에 완공된 이후 근 900회의 중대형 경기를 개최했다. 이곳은 또 연변룡정팀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연변축구의 기반과 미래를 보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문화타운 리사장 장문길은 이렇게 말하면서 연변은 최근 몇년간 문화·체육·관광 융합을 적극 추진하면서 축구가 주변 산업에 미치는 인기 이끌기 효과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2024 시즌에 연변룡정팀의 홈경기 평균 관중수는 1만 7,000명에 달했는데 이는 중국축구 갑급리그 각 홈경기 도시중 상위권을 기록했다. 같은 해 연변주는 프로축구 발전을 지원하는 관련 조치와 방법을 출범했다. “정책적 지원과 팬들의 지지 모두 기업으로 하여금 연변의 축구산업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합니다.” 장문길은 이어 올해 문화타운은 더 많은 외부 자원을 유치해 공동 건설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백년 력사의 ‘축구의 고향’은 이제 세가지 간판을 가지고 있다. 전국 축구 발전 중점 도시, 국가 서부지역 체육·교육 융합 축구 유소년 훈련 시스템 구축 시범 프로젝트 도시, 전국 첫진 청소년 교정축구 고수준 종합개혁 시험구… 력사적 전통, 정책적 지원, 대중의 열정, 산업 융합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면서 일련의 중소 민간기업들도 축구 시장을 더욱 주목하고 있다. “연길시에서 민간기업이 투자한 축구장 비율은 절반을 훨씬 넘습니다.” 운영진의 말이다.

올해 5월 금대축구구락부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한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이미 1,400만원을 투자했고 작년에야 본전을 뽑았습니다.” 운영진은 아마추어 구락부를 운영함에 있어 수익은 주로 구장 임대, 경기 마케팅 등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나는 고향을 사랑하고 축구도 사랑합니다. 연변축구가 빛을 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로망】(瞭望) 신문주관

바드민턴 경기로 여러 민족의 단결과 화합 도모



23일, 제4회 장춘소수민족 바드민턴친선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길림성 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에서 주최하고 장춘조선족바드민턴협회에서 주관했으며 길림성몽골족문화경제촉진회, 장춘시몽골족문화촉진회, 장춘시시버족문화촉진회, 장춘조선족녀성협회, 장춘시남관구회족소학교 등이 협조했다. 조선족, 시버족, 몽골족, 회족, 만족 등 100여명의 바드민턴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단결과 스포츠 정신의 향연을 펼쳤다.

오전 9시경, 개막식이 장춘시종합체육관에서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축사에서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 상무부회장 박재국은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여러 민족간의 이해와 우정을 깊게 하는 소중한 자리이다. 지난 대회의 성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여러 민족이 실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하며 민족단결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주최측은 ‘민족단결이 첫째, 경기가 둘째’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선수들이 경기중 레의를 지키고 서로 화합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박재국 상무부회장이 시범서비스를 날리며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대회는 갑조와 을조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으로 나누어 갑조 남자복식, 여자복식 및

을조 남자복식, 여자복식의 조별리그, 준결승전을 차례로 진행했다. 7개 경기장에서 동시에 열린 경기에서 선수들은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스매시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고 공을 향한 치열한 접전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투지는 관중들의 함성과 박수를 자아냈다.

특히 조선족과 회족, 몽골족과 만족 등 서로 다른 민족 선수들이 팀을 이루어 함께 경기에 참가함으로써 경기의 재미를 더하고 여러 민족 선수들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했다.

시버족바드민턴협회 대장 류우는 “올해 우리는 세번째로 이 대회에 참가합니다. 비록 실력은 부족하지만 매년 작은 목표를 세우면서 무엇보다도 이런 다민족 교류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는 31점제로 진행되었고 16점에서 코트를 바꾸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경기 시작후 5분 이내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기권 처리하는 규칙을 적용해 대회의 공정성을 높였다. 대회 규정에 따라 조별 리그에서 상위 두 팀이 진출하고 각 조별로 1, 2, 3위를 선정해 순위를 가렸다.

오후 5시경에 열린 시상식에서 각계인사들은 수상자들에게 상품과 메달을 수여했다. 이로써 제4회 장춘소수민족바드민턴친선대회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 오건 김명준 기자



월드컵 아시아지역

현재 조 최하위 중국팀, 25일 오스트라리아와 정면전



3월 20일, 주심이 중국팀 선수 림량명(11번)에게 레드카드를 꺼냈다. 중국팀은 이날 0대1로 경기를 내졌다.

지난 21일 새벽, 2026년 미국·캐나다·멕시코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경기 18강전 제7라운드 경기가 모두 종료된 가운데 중국남자축구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팀에 0대1로 패하며 승점 6점으로 C조 최하위에 머물게 됐다. 한편, 같은 조의 일본은 바레인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며 3경기 앞당겨 2026 북중미월드컵 직행 티켓을 확정지었다.

이번 경기가 시작되기 전 중국팀은 C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바레인과 모두 6점으로 승점이 동일했다. 하지만 관전전으로 주목받았던 이날 경기를 내주며 중국팀은 1점이 소중한 시기 승점을 쌓지 못했다.

같은 조 경기에서 일본이 홈에서 바레인을 제치고 오스트랄리아도 홈에서 인도네시아에 5대1 대승을 거두었다. 7라운드가 끝난 뒤 일본팀이 6승 1무 승점 19점으로 조 1위를 달리며 3경기를 남겨두고 2위인 오스트랄리아에 승점 차이를 9점으로 벌려놓았다. 이로써 일본은 아시아지역에서 월드컵 본선 진출 티

켓을 거머쥔 첫 팀이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날 경기 승리로 승점 9점을 기록하며 3위에 자리 잡았고 본선 직행 진출권과 단 1점이 차이났다.

한편 중국팀은 인도네시아, 바레인과 동일하게 6점을 기록하고 있으나 골 득실차 열세로 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소조 진출의 구도가 오스트랄리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조 2위를 다투고 바레인,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부가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4위 자리를 놓고 찬스 쟁탈전을 벌이게 된다.

마지막 3경기에서 중국팀은 우선 25일(래일)에 호주 홈에서 오스트랄리아와 맞대결을 펼치며 이후 6월에 현재 동일 승점을 기록중인 인도네시아, 바레인과 직접 대결을 벌이게 된다. C조의 진출 경쟁은 매우 치열할 예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각 조소 1, 2위 팀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고 3, 4위 팀은 4단계 경기에 참가해 계속하여 본선 티켓을 두고 쟁탈을 벌인다.

/ 신화사